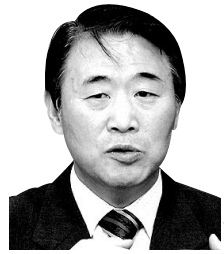


“...→”-



정 천 구
서울대지탈대 석좌교수

북한 실제 3인방의 껍짝 방문으로 부풀었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는 지난 7일 북한경비경의 NLL침범사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나마 2차 고위급 접촉을 10월말과 11월초 사이에 갖기로 한 양측의 약속이 있어 남북대화를 살려 낼 불씨가 남아있는 셈이다. 여기서 대화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남북관계를 전망해 본다.

손쯔(孫子)는 승리하는 용병술의 요체를 “상대방이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출격(出其不意)하며, “상대방이 전혀 준비하지 못한 곳을 공격(攻其無備)”하고 “군대는 신속함을 귀하게 여긴다(兵者貴速)”고 썼다. 북한의 외교방식이 바로 이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는 상업거래 방식으로 외교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전체주의국가들이 썼던 전사(戰士)방식의 외교를 한다. 외교를 전쟁의 연장이라고 보는 것이다.

북한 3인방의 한국 방문도 한국 측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과 시기에 전격적

으로 이루어졌다. 정부, 정당, 언론 할 것 없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너무나 허둥대고 상황에 맞지 않는 반응을 연출했던 것이다.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가를 명분으로 한국을 전격 방문한 북한의 목적은 3인방의 면면과 북한의 행태에서 가능해 볼 수 있다. 우선 김정은이 제일위원장으로 있는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군 총정치국장인 황병서는 김정은을 사실상 대행했다. 김정은의 유고설을 잠재우고 북한군의 존재감을 과시하여 겁을 주려는 낯은 수법의 심리전을 수행한 것 같다.

노동당비서이며 국가체육위원회의 위원장인 최용해는 김정은의 체육정책 성과를 홍보하는데 필수적인 인물이다. 북한의 그 후 행태를 보면 이번 방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여자축구에서 한국에 이겨 우승을 하고 아시안게임 전체 성적 7위를 기록한 북한 선수단의 성과를 체제선전에 활용하려는 것이었다. 평양귀환 후 승전소식을 알리면서 북한매체는 한국에게 진 남자축구 이야기는 빼고 한국에게 이긴 북한의 여자축구 승리와 아시안게임 성과만을 대대적으로 선선했다.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인 김양건 통일전선사업부장의 등장을 통해 나타났다. 그가 한국의 대화재개 요구에 대한 임기응변적 대응을 위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의 대화의지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적 상황과 국제적 고립이라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북한은 남북대화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대화의 진전여부는 유고설이 계속 나타나 불안정해 보이는 김정은 체제가 언제 안정을 되찾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북한매체가 남북대화 대해 일언반구도 안하고 있는 것을 대화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속인수가 기본인 병법(兵法)의 사고방식에 비추어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 다만 최근 NLL 사건과 대북빠라살포 중지협박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대화에서 특기인 버랑만을 했기 때문이다. 집단과 집단 간의 관계는 서로 이익을 주고받으며 거래 실적과 신뢰가 쌓이면서 누적적(累積的)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남북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역대 정부는 원칙 없이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면서 남북대화 회에 목을 매 왔다. 남북대화는 곧 통일이라는 잘못된 가정에 기초했던 것이다. 남북대화는 통일의 여러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남북관계만 잘 된다고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잘못된 남북관계 발전은 북한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분단을 고착화시킨다. 지난 시기 요란하게 진행되었던 남북 대화와 원칙 없는 대북지원이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니었던가.

지금부터라도 우리 정부는 북한동포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통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단호히 이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동포를 곤경에서 구출하고 통일에 도움이 되는 사안은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투자해야 한다. 이런 대원칙을 가지고 대화와 통일문제에 접근할 때만이 통일은 우리에게 대박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로 발전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남북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역대 정부는 원칙 없이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면서 남북대화 회에 목을 매 왔다. 남북대화는 곧 통일이라는 잘못된 가정에 기초했던 것이다. 남북대화는 통일의 여러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남북관계만 잘 된다고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잘못된 남북관계 발전은 북한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분단을 고착화시킨다. 지난 시기 요란하게 진행되었던 남북 대화와 원칙 없는 대북지원이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니었던가.

지금부터라도 우리 정부는 북한동포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통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단호히 이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동포를 곤경에서 구출하고 통일에 도움이 되는 사안은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투자해야 한다. 이런 대원칙을 가지고 대화와 통일문제에 접근할 때만이 통일은 우리에게 대박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현대불교 창간 20주년을 맞으며...

佛法으로 ‘세상치유’ 거듭 다짐

1994년 10월 15일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로 표방하며 출발한 현대불교 신문이 어느덧 20주년을 맞았다. 흔히 강산이 두 번 변한다는 촌각인 2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그동안 세상도 변해갔다. 불교계 언론 환경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IT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뉴스의 양과 속도가 몰라보게 빨라졌다. 모든게 빠른것만 원하고 그것만 통하는 세상이 됐다.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 폐해도 심각하다. 이런 빠름의 중독을 중화시켜 주는 역할을 불교가 해야 한다. 특히 이는 불교 언론의 몫이자 사명이다. 요즘 흔히 종이 신문의 위기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회자된다. 하지만 인터넷에 기반한 새로운 미디어들은 정치적이고 빠른 정보, 쌍방향에는 정통하지만 풍부한 읽을 거리와 아날로그식 감성을 전달하기엔 역부족이다. 현대불교는 이런 사회변화에 맞춰 지난해에는 마음산업을 주제로 한 기획을 실어 한

국불교기자협회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3년전부터는 마음·명상 페이지를 신설해 독자들에게 마음 공부하는 법도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마음공부를 통해 내면의 자신과 조우하고 집착서 벗어나 참 행복을 찾는 지혜를 일러주는 대형 스님의 법문 ‘길을 묻는이에게’ 역시 창간호부터 계속 이어오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하나 더 있어 좋은 신문”을 표방하며 출발한 현대불교는 지난 20년간 불교계 사부대중의 큰 사랑에 힘입어 마음이 아프거나 지친 이들에게 힐링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행 포교매체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앞으로도 현대불교는 초고속 인터넷 시대에 살지만 그로 인해 병들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큰 힘이 되주는 문서 포교 힐링 매체로 거듭 날 것을 독자 제현들에게 다짐한다. 힘차게 달려갈 새로운 20년, 아니 50년, 100년은 바로 그러한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그것이 현대불교가 존재하는 큰 이유다.

동국대 ‘제2의 도약’ 에 박수를

동국대는 최초의 불교종립대학으로 한국에서 얼마 안되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사학이다.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한 선각자들의 출현으로 만들어진 동국대는 몇 년 전만 해도 적지 않은 부침이 있었다. 동국대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정아 학력 위조 사건으로 위상이 큰 손상을 입었고, 재정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대학 구조 개편과 교수 평가제 등이 도입되면서 체질 개선을 단행했다. 10월 6일 발표된 2014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그간 동국대의 노력이 그대로 보이는 결과다. 이번 평가에서 동국대는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하며 역대 최고 성적인 11위를 기록했다. 동국대는 핵심 지표인 국제화 3위(전년 4위), 평판도 15위(전년 17위), 교수 연구 18위(전년 19위), 교육여건 및 재정 23위(전년 26위)로 전 분야에서 고른 순위

상승을 이끌어 냈다. 그동안 낮은 평가를 받았던 교육여건 및 재정분야도 지난해 26위에서 23위로 올랐다. 불교계의 기부가 이어져 지난해 기부액은 역대 최고인 309억원을 기록했다. 기부자 수도 크게 늘어 6,600여 명이 기부에 참여했다. 동국대는 2008년 29위에서 매년 꾸준히 순위상승을 이뤄내며 올해 11위까지 상승해 국내대학 중 가장 성공적으로 대학 체질을 변화시킨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동국대는 108주년을 맞아 지역 랜드마크 기념관 건립 등 ‘제2의 도약’ 을 준비 중이다. 10월 8일에는 기념관 건립발사 선포 및 후원회 밤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인재 양성과 교육은 한 집단의 미래를 결정한다. 동국대의 노력과 발전은 불교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동국대의 ‘제2의 도약’ 에 불자 모두 성원을 보내자.

개산대제, 이젠 지역축제

개산대제가 변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축제로 지역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도심 속 국화축제, 자연을 벗삼은 산사음악회 등이 그 것이다. 개산대제가 지역축제로 거듭나는 의미와 방향에 대해 이를 주도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입장을 들어 보았다. 편집자 주

“대중의 눈높이 맞추는 사찰문화 기대”



진승 스님
통도사 교무국장

영축총림 통도사는 지난 10월 2일 1396주년을 기념하는 개산대제와 함께 영축문화축제를 봉행했다. 지난해부터 개산대제를 문화축제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통도사는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중들과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에는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만발공양 및 위로공연 등으로 소외된 이웃과 어르신들의 포교에 진력했다면 올해는 어린이 포교에 중점을 맞추어 축제를 꾸렸다. 5세~13세 어린이를 위한 수계식,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다문화 공연 등으로 구성되어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은 사찰에 대한 접근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사찰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

만 불교가 노령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젊은 어린이들이 오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조용하고 고요한 이미지를 표방하던 사찰은 이제 대중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절에 오게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가령, 통도사가 20년 넘게 사생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지만 이제는 사생대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유인 즉은 요즘 학생들은 사생 그리기보다는 캐리커처 등을 그리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찰도 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중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사찰에 오는 대중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것은 이 시대 사찰이 가진 숙명일 것이다.

“문화콘텐츠 활용 지역민 거부감 없애자”



위영란
봉은사 홍보실장

최근 개산대제는 자연스럽게 지역주민과 직장인, 외국인들이 함께 사찰에서 어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불교계에는 문화 콘텐츠가 많다. 이중 사찰이 장건된 날을 기념하고, 역대 큰 스님들을 추모하는 개산대제를 문화행사로 승화시키는 것은 일반인들의 불교에 대한 친숙함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서울 봉은사는 강남에 위치한 전통사찰로, 불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과 외국인들도 찾는 문화·휴식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다. 봉은사에서는 이번 개산대제에 맞춰 국화축제와 산사음악회를 함께 준비했다. 특히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사음악회 가수선정에서 대중성을 고려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사중 신도들

뿐만 아니라 가수들의 팬클럽, 지역주민들이 찾아와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사찰 측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많다. 평소 불교를 접하지 못한 이들이 개산대제 축제를 계기로 접하고 신도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비나눔 음악회, 바자회 등을 통해 불교가 단순한 기도를 하는 신앙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실천운동이란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불교계에서는 이런 개산대제 행사를 문화축제를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관한 기관과의 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도심에 위치하지 않은 사찰의 경우 지역 기관과의 협조체제와 함께 SNS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SNS를 통한 홍보는 지역의 한계를 뛰어 넘기 때문이다. 특히 축제 전 홍보 뿐만 아니라 축제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SNS를 통해 알려 다음 회 축제에 참여하는 이들을 관심을 끄는 것도 중요하다.

사과문

존경하는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큰스님을 비롯한 회원종단 대표스님들께 고두 삼배를 올립니다.

먼저 저의 미망으로 한국불교 종단협의회회의 명예에 누를 끼친 점 사죄드립니다. 석가모니부처님도 많은 제자들을 받아들여시고, 수행의 길로 인도 하시실 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시 한 것이 승가의 화합이었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 불교에는 대중공사라는 빛나는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납의 어리석음으로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회원종단 대표 스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리오니 너그러운 처분을 바랍니다. 또한 불교의 발전과 더불어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힘을 쏟을 것을 다짐합니다. 부디 소납의 미망을 용서해 주시고, 성불의 그날까지 수행에 전념할수 있도록 견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기 2558년 10월 10일

대한불교 진언종 총무원장 혜천 합장

